

광주 도심 무인점포 증가세...안전 관리 '사각지대'

즉석사진관·라면 가게 등 발달·조리 기구 위험 ↑ 다중이용업소 미해당엔 규정 無...“법 제정 시급”

“직원 눈치 보지 않고 이용할 수 있어 편리하지만, 사고가 났을 때 스스로 대처해야 한다는 게 불안하죠.”

최근 인건비 상승 등의 여파로 ‘무인점포’가 각광받고 있는 가운데 광주 도심에도 해당 점포들이 늘고 있으나, 정확한 상태 파악조차 되지 않고 있는 것으로 확인됐다.

게다가 무인점포 중 ‘다중이용업소’에 해당하지 않을 경우 화재 등을 방지하기 위한 계획수립 및 안전조치가 의무 사항이 아니어서 사고 위험 우려와 함께 대안 마련이 시급하다는 지적이다.

9일 오전 10시께 북구 용봉동의 한 무인점포. 구매했던 라면을 스스로 끓여 먹을 수

있는 이곳 가게 곳곳에는 가열 기구와 전자레인지 등 전자제품이 배치돼 있었다.

이용자들은 상품을 선택한 뒤 결제하고 조리해서 먹는 방식이었는데, 일반 분식점 대비 가격이 저렴하고 혼자서도 편히 있을 수 있어 자주 찾는다고 입을 모았다.

특히 간단히 끼니를 해결할 수 있어 서민지 점심 시간이 아님에도 사람들의 발길이 이어졌다.

대학생 이모(28)씨는 “집에서 아침을 챙겨 먹기 번거로워 이곳 매장을 종종 찾는다”며 “무인점포는 2시간 운영되는 곳이 많은데, 가장 큰 장점”이라고 말했다.

다만, 매장을 관리하는 사람이 전혀 없어 불안하다는 목소리도 나왔다. 실



인건비 상승 등의 여파로 ‘무인점포’가 각광받고 있는 가운데 광주 도심에도 해당 점포들이 늘고 있다. 안전관리 사각지대라는 우려가 나온다. 사진은 광주 북구 용봉동의 한 무인점포 /장은정 기자

제 이 매장의 경우 조리 기구가 많아 화재 위험이 높아 보였으나, 소방 설비는 소화기 하나 뿐이었다.

동구 한 무인 사진관도 화재에 취약해 보이긴 마찬가지였다.

사진 촬영 전 머리를 정리할 수 있고

다는 영업 특성에 화재 등 사고에 적극 대처하기 어려워 보였으나, 더 큰 문제는 일반음식점·휴게시설 등처럼 영업 시설 종류에 따른 분류·집계 자체가 지자체 차원에서 이뤄지지 않고 있다는 점이다.

이에 대해 일선 자치구 관계자는 “비정기적으로 집계를 하고 있긴 하나, 일이 업장을 돌아다니면서 확인해야 해 현실적인 어려움이 크다”고 설명했다.

이 탓에 소방당국은 안전 관리 차원에서 무인점포 중 다중이용업소에 해당하지 않은 곳을 자체 파악하고 있다.

다중이용업소의 경우 관련 특별법에 의해 안전시설등의 설치·유지 및 안전관리를 위한 필요한 사항이 명시돼 있으나, 이에 해당되지 않은 곳들은 별도 규정이 없어 사고 위험이 높기 때문이다.

지난해 3월 기준 광주 시내 다중이용업소에 해당하지 않은 무인점포는 총 2

85개소로 집계됐다. 업종별로는 세탁소가 61개소로 가장 많았으며 ▲아이스크림 판매점 51개소 ▲PC방 45개소 ▲코인 노래방 33개소 ▲카페 31개소 ▲사진관 23개소 ▲게임제공업 20개소 ▲스터디 카페 12개소 ▲밀키트 판매점 9개소 순이었다.

올해 기준 개소 수는 집계중이나 지난해보다 늘어난 것으로 추정된다는 게 소방당국의 설명이다.

그러나 개소 수를 파악해도 사고에 따른 대책 마련은 결국 업주가 자체적으로 해야 해 소방당국은 다중이용업소뿐만 아니라 전체 무인점포를 대상으로 한 안전 규정이 마련돼야 한다고 제언했다.

광주시 소방본부 관계자는 “특이 날 때마다 무인점포를 찾아 화재 등 사고 예방에 힘쓰고 있으나, 안전 대책을 의무화 하기 위해선 법 제정이 무엇보다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장은정 기자



돌봄전담사 전일제 전환 촉구 9일 오전 광주시교육청 앞에서 전국교육공무직본부 광주지부 조합원들이 기자회견을 열어 단시간 돌봄전담사 전일제 전환을 촉구하고 있다. <전국교육공무직본부 광주지부 제공>

‘거문도 간첩단’ 이전 남북 피해자들 50년만에 무죄 광주고법, 국보법 위반 2명 재심서 고문 등 인정

‘거문도 간첩단’ 사건 이전 같은 지역에서 납북됐다가 ‘고정 간첩’으로 몰려 처벌받은 피해자들이 50년만에 무죄를 인정받았다.

광주고법 형사2부(이의영 고법판사)는 9일 A(70)·B(78)씨에 대한 국가보안법 위반 혐의재심재판에서 무죄를 선고했다. 재판부는 A·B씨와 함께 처벌 받은 뒤 앞서 사망한 피고인 2명에 대해서도

원심을 파기, 무죄 판결을 내렸다. A·B씨는 김재민씨 일가의 ‘거문도 간첩단’ 사건 3년 전에 발생한 또다른 간첩단 사건의 피의자다.

A씨는 1972년 17세의 나이에 삼촌의 꼬임에 속아 납북된 후 고향 거문도로 돌아와 1973년 수사 기관에 체포됐다. 당시 수사 기관은 A씨가 북한에서 세뇌교육과 지령을 받은 뒤 남한으로 돌

아와 아버지와 어머니, 친척 B씨를 포섭해 함께 고정간첩으로 활동했다고 하며 구속영장 없이 이들을 장기간 구금했다.

검찰은 고문·가혹 행위에서 비롯된 자백을 근거로 기소했고, 1974년 1심 재판에서 유죄 판결을 받아냈다.

뒤이어 열린 항소심 재판에서 A씨는 징역 15년 등을, 나머지 피고인 3명은 징역 3년6개월~5년을 확정 받았다.

형 집행 종료 이후 A씨 등은 고향을 떠나 살다가 ‘거문도 간첩단’ 사건의 김재민씨 유족 등이 재심에서 무죄를 받아내자 용기를 내 재심을 신청했다. /안재영 기자

日강제동원 피해자 유족, 손해소 승소

12명, 니혼코크스공업 상대...계기 5년여만

일제강점기 시절 탄광에 끌려가 노역에 시달린 피해자들의 유족들이 법원으로부터 손해배상금 지급을 인정받았다.

광주지법 민사11부(유상호 부장판사)는 9일 강제동원 피해자 7명의 유족들이 니혼코크스공업주식회사(전 미쓰이광산)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 청구 소송에서 원고 일부 승소 판결을 내렸다.

재판부는 배상금으로 원고 11명의 상속 비율에 따라 1천300여만~1억원을 산정했고 피고 측에 지급할 것을 주문했

다. 피해자 중 1명인 박훈동씨는 강제동원 전 일본 관동군에 징집돼 북만주 지역에서 약 2년 동안 복무했다.

부상을 입고 전역한 후 박씨는 고향인 화순에서 요양하던 중 또다시 일본 경찰에 연행돼 홋카이도 탄광으로 끌려갔다. 이곳에서 석탄 운반 작업 중 손가락 2개가 절단되기도 했으나, 제대로 된 치료조차 받지 못한 채 해방 이후에도 강제 노역에 시달렸다.

광복 이듬해 1월 고국으로 돌아온 박

씨는 진폐증 등 폐질환에 시달리다 2001년 사망했다.

다른 피해자들 역시 고된 노동 환경과 비인간적인 대우에서 비롯된 후유증에 시달리다 세상을 떠났다.

이 소송은 2019년에 제기됐으나, 다른 일제강제동원 피해자들의 손해배상 재판과 마찬가지로 일본 측의 비협조로 5년여간 공전됐다.

판결 선고 후 한 유족은 “일본의 사죄가 없기에 만족하지 못하지만, 전범 기업의 잘못을 인정하는 상징적 재판이라고 생각한다”고 소회했다. /안재영 기자

“5·18 왜곡 발언” 위덕대 교수, 배상 책임 인정

법원, 기념재단·유족회·부상자회에 각 100만원 지급 주문

강의 중 5·18 왜곡 발언으로 물의를 빚은 위덕대학교 전직 교수가 손해배상 소송에서 패소했다.

광주지법 민사11부(최은중 민사전담법관)는 9일 5·18기념재단과 5·18민주화운동 부상자회, 5·18민주유공자 유족회가 전 위덕대 교수 A씨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 소송에서 원고 일부 승

소 판결을 했다.

재판부는 A씨가 원고 각각에게 지급해야 할 위자료로 100만원을 산정, 지급할 것을 주문했다.

앞서 A씨는 지난 2021년 위덕대의 ‘사회적 이슈와 인권’ 강좌 4주차 2교시 비대면 수업 중 “5·18이 민주화운동이 아니고 북한군이 저지른 범죄행위란

주장은 상당한 과학적 근거와 역사적 증언, 증인을 갖고 있다”고 발언했다.

이를 두고 비평이 이어지자 A씨는 공식 사과했으나, 다른 견해와 ‘학문적 입장’ 차이에 비뚤어진 발언이었다고 밝힌 진정성 없는 사과라는 지적을 받기도 했다.

당시 광주시는 A씨를 5·18 왜곡 처벌법에 의해 처벌해달라고 수사 의뢰하려 했으나, 학문·연구 목적이었음을 이유로 처벌하지 않는 예외 규정에 뜻을 접었다.

이에 5·18 기념재단과 오월 단체(유족회·부상자회)는 형사처벌 대신 손해배상 소송을 제기했다. /안재영 기자

60플 라워

Flower

축하화환 3단 근조화환 3단

전국전지역6만배송 (기타낙후지역 배송비 추가요금발생)
Tel. 010-9984-0151 농협 박배성 302-0316-649511

실내스크린파크골프장

18홀~36홀/전국유명파크골프장 실전

- 파크골프장 실전라운딩(1~4인)
- 입문반(1:1지도)

1. 파크골프기초교실·라운딩연습교실	매일/9시~
2. 파크골프지도자1,2급자격증 취득반	수시접수

- 무더위쉼터 실내파크골프장 운영 / 오전9시~저녁10시
- 파크골프용품·용구 전시장 완비!

화정새마을금고4층 | 010-9163-7897
광주광역시 서구 상무대로 1089